

폼사 산출 양상에 따른
노년층의 발화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김 지 영

품사 산출 양상에 따른
노년층의 발화 특성

지도교수 김 향 희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김 지 영

김지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 향 희 

심사위원 서 상 규 

심사위원 조 성 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년 6월

감사의 글

언어병리학에 입문한 지 어느덧 2년 반이 지나, 대학원의 모든 과정들이 끝나갑니다. 울고 웃었던 대학원에서의 생활들이 앞으로 삶에서 잊지 못할 추억과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세심한 논문 지도뿐 아니라 입학 면접부터 졸업까지 저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고 보살펴주신 김향희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소했던 국문학 영역에서 헤매고 있을 때 많은 조언과 격려를 주셨던 서상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서툴게 작성한 논문에도 따뜻한 조언과 미소를 아끼지 않으셨던 조성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연구의 피험자 모집을 도와주신 신촌교회의 경로대학 손갑용 장로님과 어르신분들, 가산복지관과 상월곡복지관의 어르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열정적이고 알찬 가르침을 주셨던 서미경 교수님, 김민정 교수님, 윤희련 교수님, 이해란 교수님, 윤영선 교수님, 최예린 교수님, 윤지혜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실습기간동안 임상의 노하우를 전해주시신 김효진 선생님, 이영미 선생님, 김수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함께여서 행복했던 우리 대학원 동기들- 지연언니, 아란이, 인수, 희진이, 담희 그리고 의숙언니까지 모두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께 했던 시간들이 벌써 너무나 그립고 앞으로도 이어지고 싶습니다.

연구에 기꺼이 참여해 도와주고, 함께 공부하고 의지했던- 정진이, 명기, 재호, 도연이, 가영이, 예슬이, 지현쌤, 인혜쌤, 수진쌤, 인주, 연우, 호중... 그 외 여러 후배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어려운 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던 윤경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던 든든한 이수정 선배님, 많은 질문에 친절히 도와주신 이승진 선배님... 인턴 근무를 마치시고 늦은 시간에도 함께 했던 수정 선생님, 민아 선생님... 행정실의 든든한 지원군이셨던 희현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피험자가 되어 주고 대학원 생활을 격려해 준 친구들 수진이, 상정이, 미경이, 은지, 혜진언니, 유리언니, 지현, 은정, 현선이, 현주언니, 태정언니 모두 고마워요. 기도로 응원해준 성환, 재진, 지연이, 쉐 가족들도 고마워요.

집에서 티격태격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준 하나 뿐인 언니에게도, 그리고 투정을 들어준 희택이에게도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합니다. 번번이 넘어지고 부족한 저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항상 제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당신이 주신 말씀처럼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저자 씀

차 례

표 차례	iii
국문 요약	iv
I. 서론	1
1. 이론적 배경	1
가. 노화에 따른 발화 특성	1
나. 품사 분석을 통한 발화 특성	3
다. 우리말의 품사	4
라. 품사의 토큰과 타입 및 어휘다양도	4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3. 연구 문제	7
II. 재료 및 방법	8
1. 연구 대상	8
2. 실험 자료	9
가. 실험 절차	9
3. 자료 분석	9
가. 자료 전사 원칙	10
나. 품사의 구분 방법	11
다. 품사별 정의 및 품사 분류 시 유의사항	12

4. 신뢰도 분석	16
5. 통계 분석	17
III. 결과	18
1. 분류 방법에 따른 품사 산출의 양상	18
가. 형식적 분류에 따른 품사	18
나. 기능적 분류에 따른 품사	19
다. 의미적 분류에 따른 품사	22
2. 용언의 관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25
가. 추가 실험의 필요성	25
나. 실험 절차	26
다. 분석 결과	26
IV. 고찰	28
V. 결론	32
참고문헌	33
Abstract	36

표 차례

표 1. 피험자 정보의 평균과 표준편차	8
표 2. 품사의 분류와 분석표지	11
표 3. 집단별 형식적 분류에 따른 품사 빈도와 비율 및 TTR	18
표 4. 집단 간 형식적 분류에 따른 품사 비율과 TTR의 통계분석	19
표 5. 집단별 기능적 분류에 따른 품사 빈도와 비율 및 TTR	20
표 6. 집단 간 기능적 분류에 따른 품사 비율과 TTR의 통계분석	21
표 7. 집단별 의미적 분류에 따른 품사 빈도와 비율 및 TTR	22
표 8. 집단 간 의미적 분류에 따른 품사 비율과 TTR의 통계분석	24
표 9. 집단별 용언의 관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의 사용 비율	27
표 10. 집단 간 관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사용의 통계분석	27

국 문 요 약

품사 산출 양상에 따른 노년층의 발화 특성

본 연구는 자발화 과제에서 품사 산출 양상을 통해 노년층의 발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일반 노년층 35명과 청년층 35명의 자발화를 품사 분류의 세 가지 기준인 형식,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때, 각 품사가 실제로 사용된 빈도수인 토큰(token)과 개별 품사 유형의 출현 빈도인 타입(type), 그리고 어휘다양도(type-token ratio: TTR)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 형식적 분류의 품사에서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가변어에서는 토큰과 타입 모두 더 적게, 불변어에서는 토큰과 타입 모두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때 가변어의 어휘다양도는 노년층이 더 낮게 나타났다. 기능적 분류에서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체언에서는 토큰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용언에서는 토큰과 타입 모두 적게 사용하였다. 이때 용언의 어휘다양도는 노년층이 더 낮았다. 수식언에서는 토큰을 더 적게, 독립언에서는 토큰을 더 많이 산출하였다. 의미적 분류에서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대명사에서는 토큰과 타입 모두 더 많이 산출하였고, 동사에서는 토큰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때 동사의 어휘다양도는 노년층이 더 낮게 나타났다. 형용사에서는 토큰과 타입 모두 청년층보다 더 적게, 부사도 토큰과 타입 모두 더 적게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감탄사에서는 노년층이 더 많은 타입을 산출하였다.

추가 실험으로, 노년층에서 산출이 적었던 용언과 가변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용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관형적 용법, 서술적 용법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서 용법 사용의 비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관형적용법보다 서술적 용법의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 노년층의 용언 사용에서 토큰과 타입이 모두 줄어든 것은 가변어인 용언 활용에서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동사는 노년

층이 토근을 더 많이 산출함에도 타입에는 차이가 없었고, 어휘다양도도 낮았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동사가 아닌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용언에서 동사의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형용사의 사용이 줄어든 폭이 훨씬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용언은 줄어들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형용사의 사용 비율이 전체 용언의 비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형용사의 특징이 주로 상태를 서술하고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내포하며 표현을 풍부하고 세밀하게 해준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년층의 발화에서 위와 같은 점이 부족한 경향성을 볼 수 있다. 또한 노년층은 용언의 사용에서 관형적 용법이 적고 서술적 용법이 많은 점을 보아, 용언을 사용할 때 체언을 수식하고 한정하는 용법의 사용이 힘들고, 서술하는 용법의 사용을 더 수월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품사 산출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히며, 품사의 세 가지 분류방법을 통해 여러 측면에서 그 특징을 분석한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품사 산출의 토근, 타입, 어휘다양도를 측정하여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발화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품사 산출 양상에 대해 연령뿐 아니라 교육년수, 성별의 영향을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발화단위에 따른 용언의 사용 분석을 통한 문장구성 능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핵심되는 말 : 노년층, 자발화, 품사, 용언, 형용사, 토근, 타입, 어휘다양도, 관형적 용법, 서술적 용법

품사 산출 양상에 따른 노년층의 발화 특성

<지도교수 김 향 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김 지 영

I. 서론

1. 이론적 배경

발화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일반 노년층과 청년층의 자발화 과제에서 품사 산출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노년층의 발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노화에 따른 발화 특성

노년기에는 신체적인 기능이나 건강이 약화되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전에 가능했던 활동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의사소통능력이다.¹ 그러므로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의 특정 영역별로 어떠한 기능이 감소되고, 이러한 기능 감소가 노인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어려움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면, 노년기 연령 단계별로 정상노인들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언어재활사가 도와 줄 수 있다.¹ 우리나라 노년층이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곤란함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² 의사소통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이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노년기의 언어 능력은 대체로 70세까지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인지능력은 70세경부터 감소한다.³ 노년층에게서 나타나는 언어표현 능력의 저하는 인지 기능의 저하와 관련이 있다.²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화용언어 능력은 점차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노년기에 나타나는 인지-화용언어 상의 문제는 일상생활,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초래한다.⁴ 또한 성인의 초기, 중기, 및 노년기의 복문사용에 대한 평가 연구⁷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화시 복문의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사용하는 문장의 복잡성이 단순해지고 문장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서술어의 사용이 적고, 구어수행과제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오류율이 높다고 한다.⁷ 정상 노인들의 언어 표현 능력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이 대개 구문 구조와 복잡성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노화로 인해 감퇴된 언어표현이 나타났다. 노년층의 담화특성을 대화, 그림 설명, 이야기 말하기의 비교 과제를 통해 분석한 연구⁸와 대화와 그림 설명에서 정상 노인의 발화 특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⁶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발화 과제를 통해서 정상 노화 과정에 나타나는 담화 특성인 정보 전달 능력 및 담화의 양적 측면의 감소는 의사소통 장애 환자들의 문제와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정상 노년층의 담화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의사소통에서 큰 어려움을 가지는 노인들의 언어증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시도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⁵

나. 품사 분석을 통한 발화 특성

일반 노년층의 의사소통 능력 중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영역은 언어표현 능력과 관련된 분야로서 그 중 단어 정의하기, 품사, 이름대기와 같은 의미론적 측면의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² 노년층의 언어를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품사 분류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데, 품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첫째, 문법적인 측면에서 표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함이고⁵, 둘째, 품사로부터 대화의 내용이나 위치를 확인하여 문법적 행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며⁵, 품사 연구를 통해 단어 파생과 합성 등 단어에 나타난 화자들의 언어능력을 도출해 낼 수도 있다. 선행 품사 연구를 살펴보면, 실어증 환자군과 정상군을 비교¹², 치매환자, 치매의심환자와 정상군을 비교⁵, 유창성 정도에 따른 실어증 환자군 간에 비교⁹를 통해 품사 산출 양상을 분석하였다. 위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과는 집단이나 과제에 상관없이 명사, 동사, 조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품사가 위의 3가지 품사라고 하나, 그 외의 품사의 양상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품사가 언어표현 능력을 나타내는 변별력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노인들의 언어표현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어 정의하기 능력이나 발화 시 사용하는 단어의 품사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정상 노년층은 단어 정의하기 능력이 감퇴되고¹, 명사에 비해 동사나 대명사의 사용이 늘어난다.³⁶

반면, 의미에 따른 분류방법인 9품사 분류뿐만 아니라 기능과 형식에 따른 분류를 각각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 없었다. 선행연구 중 기능에 따른 분류에서 ‘체언 및 용언’, ‘관계언’, ‘수식언 및 독립언’으로 2개씩 묶어서 살펴본 연구가 있었으나¹², 각각의 품사별로 살펴보지는 않았다. 또한 결과는 실어증 유형별 환자군 집단과 정상군 집단 간에 품사 산출 양상에 차이가 없었다.

다. 우리말의 품사

품사란 단어를 그 형식, 기능, 의미와 같은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몇 갈래로 묶어 놓은 것이다.¹¹ 단어가 문장 내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법적 행위들은 결국 그 단어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많으므로 품사는 언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문법범주이다.¹⁰ 나라의 언어가 달라지면 품사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나라의 고유의 언어와 사고가 품사를 가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품사 분류의 기준은 형식, 기능, 의미를 들 수 있다.²¹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형식’으로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의 여부를 본다. 다음 기준은 ‘기능’인데, 문장 내에서 단어가 가진 역할을 말한다. 여기서 기능은 단어와 단어의 관계와 문장을 만드는 작용의 관계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단어끼리 결합하거나 결합하는 위치 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단어가 문장의 성분으로서 문장을 만드는 데 작용하는 기능에 관한 것이다. 또한 형식은 단어가 문법 관계로 그 형식이 변하는가의 여부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기준은 ‘의미’로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품사 분류에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의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단어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가, 움직임이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다.²¹

라. 품사의 토큰(token)과 타입(type) 및 어휘다양도(type-token ratio :TTR)

품사의 빈도의 비율을 토큰(token)과 타입(type), 어휘다양도(TTR)로 살펴볼 수 있다. 토큰이란 각 품사가 실제로 사용된 총 횟수를 말하고, 타입은 개별 품사 유형의 출현 횟수를 말한다.¹⁹ 즉 타입의 수는 토큰의 종류 다양성을 나

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품사의 비율을 토큰과 타입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특정 품사가 사용 빈도는 높지만 종류가 적다든지, 빈도는 낮지만 종류가 많다든지 등의 더욱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알 수 있다.¹⁹ 토큰은 학습자가 얼마나 많은 수의 어휘를 사용하느냐를 알 수 있는 수치이며 유창성과 관련이 있다. 타입은 학습자가 적절한 곳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언어사용에서 의미적인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³⁷ 또한 토큰으로 타입을 나눈 값인 어휘다양도를 구할 수 있다. 어휘다양도는 값이 클수록, 즉 1에 가까울수록,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발화에 나타난 품사를 살펴봄으로써 화자의 표현 언어 능력을 문법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발화의 문법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국어 문법이 구어 산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국어 문법은 자기 생각을 선명하고 명석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¹⁰ 문법은 남의 생각이나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수용 또는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핵심적인 구실을 한다.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의 앞뒤를 맞추어 풀어 나가는 것은 말의 구조에 매어 있기 때문이다.¹⁰

품사의 산출 양상이 달라지는 요인은 발화당시의 환경이나 개인적인 변인들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이때, 연령을 주변인으로 삼고 연령이 다른 각 집단이 보이는 산출양상이 어떠한가 알아보고,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양상의 비교가 각 집단의 어떠한 발화특성을 보여주는지 분석할 것이며, 연령에 따른 집단특성의 차이는 노화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노화에 따른 의사소통 특성의 변화는 질병이나 장애에 의한 특성 변화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자군과의 비교와는 다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가 구별될 수 있는 선행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앞선 선행연구들은 첫째, 동일 연령대 집단 의 품사산출 양상을 비교하였다. 둘째,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품사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집단 내에서 고빈도로 나타난 품사 즉 명사, 동사, 조사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셋째, 산출한 품사의 토큰(token)만을 측정하였고, 타입(type)과 어휘다양도(TTR)를 측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동일 연령대 집단 간의 품사산출 양상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집단 간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상군의 품사산출 양상 연구에서 명사, 동사, 조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품사는 집단 간에 순위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 외의 나머지 품사에 대한 비교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이렇게 발화에서 명사, 동사, 조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는 토큰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²³ 그러므로 고빈도 품사인 명사, 동사, 조사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동사와 명사의 수행력을 비교한 연구들이 많다. 하지만 집단 내 고빈도 품사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품사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각 품사를 얼마나 산출했는가를 보기 위한 품사별 토큰을 측정하여 양적인 비교를 할 뿐 아니라 각 품사별로 얼마나 다양한 낱말을 산출하였는가를 보기 위한 타입을 측정하여, 어휘의 다양한 사용 정도에 대한 질적인 발화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때, 품사 분석 시에 품사의 분류기준인 형식, 기능, 의미에 의한 분류를 시도하고 각각의 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품사란 단어를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몇 갈래로 묶어 놓은 것이다. 역대 문법가들은 적게는 5품사에서 크게는 13품사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품사 분류론을 펼쳐왔다.¹⁰ 단어를 보는 눈이 서로 다르고 품사 분류에 대한 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하지만 품사 분류의 기준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품사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제시된 기준 사이의 타당성이나 중요도에 있어서도 논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¹⁷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품사 분류 기준에

대한 여러 논의를 함께 하려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품사를 구분 짓는 일에 이토록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 가지 분류 방법만으로 품사로 부터 발화특성을 분석해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품사의 분류 차원을 넘어서 실제의 언어사용의 특성, 분포적 정보를 깊이 있게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형식, 기능, 의미, 세 가지 품사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품사를 분류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노년층과 청년층이 자발화에서 분류방법(형식, 기능, 의미)에 따라 산출된 품사의 빈도와 비율의 토큰과 타입, 어휘다양도를 구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고, 이에 따른 노년층의 발화 특성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문제

일반 노년층과 일반 청년층에 자발화 과제를 실시하였을 때, 산출한 품사를 형식, 기능, 의미적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가. 품사별 토큰(token)은 집단 간에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나. 품사별 타입(type)은 집단 간에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다. 품사별 어휘다양도(TTR)는 집단 간에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일반 성인으로, 노년층은 만 70세 이상 89세 이하, 청년층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제한하여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피험자는 여성으로 통일하였다. 피험자 수는 노년층 35명, 청년층 35명으로, 총 70명이었다.

여기서 일반 노년층이란, (1)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이하, K-MMSE)검사를 실시하여, 연령 및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기준점수의 $-1SD$ 이상에 속하며¹⁸, (2)시력 및 청력에 이상이 없으며, (3)뇌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을 받은 과거력이 없고, (4)말언어장애나 인지장애로 진단받은 과거력이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일반 청년층의 경우, (1)K-MMSE 검사를 실시하여, 연령 및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기준점수의 $-1SD$ 이상에 속하며¹⁸, (2)시력 및 청력에 이상이 없으며, (3)뇌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을 받은 과거력이 없고, (4)말언어장애나 인지장애로 진단받은 과거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표1. 피험자 정보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연령(만) ^a	성별	교육년수 ^b	K-MMSE [*]
노년층 (n=35)	75.8±4.6	여	9.23±3.1	27.0±1.7
청년층 (n=35)	29.3±3.7	여	16.33±0.9	30.0±0.0

^a단위: 세, ^b단위: 년,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2. 실험 자료

본 연구에서는 개방질문형 자발화 과제를 사용하였다. 과제의 주제는 첫째, 건강관리, 둘째, 여행 경험에 대하여 발화를 유도하여 실시하였다.

가. 실험 절차

먼저, 피험자에게 최대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발화를 산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지시사항은 “자연스러운 대화에서의 말의 특징을 연구하기 위해 본 인터뷰를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인데, 평소 말하듯이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이었다. 그 다음, 각 집단에 동일한 두 가지 질문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요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였으며, 두 번째 질문은 “기억에 남는 여행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였다. 두 질문에 대한 총 발화시간은 최소 2분 이상 지속하도록 하였다.

이때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하거나, 발화를 충분히 산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질문을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의 추가질문은 “평소에 하는 운동이나, 식사 시에 신경 쓰는 것이 더 있나요?” 또는 “건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나요?”였다. 두 번째 질문의 추가질문은 “그 여행지에서 특히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나요?” 또는 “여행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였다. 자연스러운 발화 수집을 위해 중간에 끊거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3. 자료 분석

피험자의 언어 샘플은 Samsung YP-U5AB 녹음기에 녹음하여 수집한 지 1주일 내에 전사하였다. 녹음된 대상자의 발화는 첫 시작부터 끝까지 전사하되,

발화를 약 2분 30초 이상 지속한 경우, 약 2분 30초까지의 발화만 전사하고 이후의 발화내용은 삭제하였다. 즉, 전체 대상자의 각 발화의 길이는 발화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평균 약 2분~2분 30초로 통일하였다.

가. 자료 전사 원칙¹⁴

- (1) 기본적으로 철자법 수준의 전사를 하며, 철자를 표준어법에 맞게 표기한다.
- (2) 축약형이나 방언형은 발음 특성을 살려서 그대로 표시하되, <>안에 표준어를 기록한다. 이때, 품사는 <>안의 표준어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하였다.
- (3) 주변의 잡음과 화자가 비언어적으로 산출한 소리(숨소리, 웃음소리, 침삼키는 소리 등은 표시하지 않는다.
- (4) 발화가 끝을 맺지 못하고 끊어지는 것이나 ‘=’를 표시한다. (예: 그렇= , 갔을=) 불완전하게 발화된 단어라도 품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분석에 포함한다. (예: 갔을= ⇨동사1) 이때, 가변어일 경우 활용 전의 기본형을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하였다.
- (5) 연속하여 반복된 단어나 구, 절을 산출한 경우, 첫 번째 산출한 발화 외에는 ()안에 넣어 표시한다. 이때 ()안의 발화는 품사를 분류할 때 무시한다.(예: 그래서 (그래서) ⇨부사1)
- (6) 전사 중에 숫자나 영문이 나올 때 한글로 표기한다. 숫자는 수사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외국어는 품사 분류에서 제외한다.
- (7) 대명사 등과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는 감탄사의 경우 뒤에 ~를 붙여 감탄사임을 표시한다. (그~, 이~, 자~)
- (8) 띄어쓰기의 경우 맞춤법에 맞게 한다.
- (9) 운율적인 요소에서 억양, 장음을 표시한다.
 - ① 내려가는 억양: .
 - ② 올라가는 억양: ?
 - ③ 활기에 넘치는 기운찬 어조: !

나. 품사의 구분 방법

품사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최현배의 ‘우리말본(1991)’의 분류 기준을 토대로 하였고, 그에 따른 분류와 분석표지를 표2에 나타내었다. 기준에 따라 전체 발화를 품사별로 분류하였고, 기준에 맞추기 애매하거나, 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경우, p.12의 ‘다. 품사별 정의 및 품사 분류 시 유의사항’에 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각 품사의 빈도와 비율을 표시하였다. ‘빈도’는 실제로 산출한 횟수를 ‘개’로 나타낸 것이고, ‘비율’은 각 품사의 빈도수를 전체 산출 품사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품사의 빈도와 비율 측면에서 실제 사용한 횟수인 토큰(token)을 구한 다음, 품사별로 사용한 종류의 개수를 세어서 품사의 타입(type)을 구하였다. 이때, 가변어의 경우 어미나 접사에 상관없이 품사의 기본형을 기준으로 품사를 타입을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어휘다양도 (type-token ratio: TTR)는 ‘토큰의 빈도’를 ‘타입의 빈도’로 나누어 구하였다.

표2. 품사의 분류와 분석표지

분류 기준			분석 표지	비고	
형식적 분류	기능적 분류	의미적 분류			
불변어	체언	명사	NN	일반명사, 고유명사, 의존명사 모두 동일표시	
		대명사	NP		
		수사	NR		
	수식언	관형사	MM		
		부사	MA		
		독립언	감탄사		IC
		관계언	조사		JK

		동사	VV	보조동사는 VVX
가변어	용언	형용사	VA	보조형용사 VAX
		지정사	VC	

다. 품사별 정의 및 품사 분류 시 유의사항

(1) 체언

- (가) 명사 : 명사에는 일반명사, 고유명사, 의존명사를 모두 포함한다. 고유명사 및 고사성어는 띄어쓰기를 하더라도 하나의 명사로 분석한다. 합성명사, 복합명사의 경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검색하여 존재하는 단어일 경우에 한 단어로 취급한다. 또한 명사와 같은 형태를 띤 품사에 대해서도 표준국어대사전에 검색하여 해당 상황에서 용도를 확인하여 분석한다.
- (나) 대명사 : 대명사는 명사를 대용하는 기능과 미지의 대상을 가리키는 기능을 가진다.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며, 지시대명사는 사물과 정소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 (다) 수사 :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 또는 차례를 나타내는 단어로 양수사와 서수사로 나뉜다. 수사는 단독으로 쓰이거나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으로 쓰인다. 본 연구에서는 수사가 체언 앞에서 쓰일 때에 수관형사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수사로 취급한다.¹⁵ 수관형사는 수사와 형태가 같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들 몇 안 되는 고유의 수관형사를 수사의 형태론적 이형태로 보고 수사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

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관형사의 경우는 수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¹⁵ 수사와 수관형사의 형태(조사결합 여부) 및 기능적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쓰임에 따른 일시적 변이로 볼 수 있다.¹⁶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여 이들을 하나의 품사인 수사에 통합하여 보았다.

(2) 용언

- (가) 본용언은 동사, 형용사를 들 수 있다. 동사는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로 서술어의 구실을 하며 어미 활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로 동사와 마찬가지로 어미변화를 한다. 서술어의 구실을 하고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와 지시 대명사처럼 문장 안에서 지시성을 지닌 지시 형용사로 나뉜다. 명사+‘하다’형태의 동사 또는 형용사의 경우, 명사와 ‘하다’접사가 하나의 용언을 만든 것으로 하나의 동사 또는 형용사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공부하다’, ‘편안하다’ 등이 있다.
- (나) 보조용언은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를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보조동사는 종류가 많으며 본동사와 형태가 같아서 보조동사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것이 적지 않은데, 보조 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되는가를 따져보는 방법으로 보조동사임을 식별할 수 있다. 보조형용사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으며 대부분 본용언과 의미상의 관련을 맺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싶다’, ‘않다’, ‘보다’ ‘있다’ 등이 있다.
- (다) 지정사: 지정사는 ‘이다’를 말한다. 조사에서 분류되었으나, 활용어로 기능하기 때문에 용언에 속한다. 이때 긍정 지정사인 ‘이다’와 부정 지정사 ‘아니다’를 모두 포함한다.

(3) 수식언

(가) 관형사 : 체언 앞에 놓여 그 내용을 자세하게 꾸며주는 단어를 말한다. 관형사 중 지시관형사와 대명사의 구분은 조사가 붙어 쓰이면 대명사이고, 조사가 붙지 않고 체언을 꾸미면 관형사이다.

(나) 부사 : 동사, 형용사 등의 앞에 쓰여 그 뜻을 세밀하고 분명하게 꾸며주는 단어이다. 부사는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부사로 분류할 수 있다.

(4) 독립언

(가) 감탄사 : 말하는 이의 감동, 부름, 놀람, 응답,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형태가 변하지 않고 문장 성분에서 독립적으로 쓰인다. 남기심, 고영근(2011)은 감탄사가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개념적인 단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나타내는 품사라고 정의하면서 감탄사의 유형을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감탄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감탄사, 특별한 뜻이 없이 쓰이는 입버릇 및 더듬거림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¹⁰ 신지연(1988)은 감탄사가 문장 상에서 독립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감탄사 대신에 간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담화, 화용론적 기능을 연구하였으며, 감탄사와 간투사는 공통선상에 있으나 명칭 부여시에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¹³ 이렇듯 감탄사는 그 유형을 나누거나 간투사 또는 담화표지와 의 경계를 구분하기에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다른 품사와 형태가 같거나 분류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명사, 부사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감탄사의 경우 뒤에 ‘~’를 표시하였다.

(5) 관계언

(가) 조사: 조사는 체언이나 부사, 어미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의 뜻을 더해 준다. 크게 격조사와 접속조사, 보조사로 나눌 수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조사가 결합되었을 경우 구분하여 각각의 개수를 센다.

(6) 기타 기본 원칙

(가) 단어 차원의 형태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즉, 형태소 차원의 분석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접두사, 접미사 등의 단위는 분석하지 않는다.

(나) 본용언이 보조용언과 결합되어 한 단어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한 단어로 검색이 가능할 때, 한 단어로 취급한다.

(다) ‘하다’, ‘되다’ 등과 같이 명사나 부사 등의 뒤에 붙어서 동사,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와 결합된 합성어의 경우, 하나의 단어로 분석한다. 하지만 선행하는 명사에 조사가 붙을 때, 따로 떼어내어 ‘하다’를 하나의 독립된 동사로 보고 분석한다. (예: 공부하다☞동사1, 평안하다☞형용사1, 공부를 하다☞명사1+조사1+동사1)

(라) 복합 명사의 경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하여 하나의 단어로 검색이 가능한 경우에 한 단어로 인정한다. (예: 모래사막☞명사1, 한국무용☞명사1)

(마) 연속된 수사의 경우 사전에 등재된 ‘한두, 두세, 서너, 너댓...등’은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며, 그 외에는 각각 떼어내어 분석한다. (예: 이천구년☞수사3+명사1, 스물네 살☞수사2+명사1, 한두 마리☞수사1+명사1)

(바) 월, 요일의 이름은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다. (예: 십일월☞명사1, 오월☞명사1, 토요일☞명사1)

- (사) 불완전하게 발화된 단어라도 품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분석에 포함한다. (예: 갔을= ㄷ동사1)
- (아) 불필요하게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산출한 단어나 구, 절은 뒤에 나온 부분을 ()안에 표시하고 이는 한 번만 산출된 것으로 분석한다.
(예: 그래서 (그래서) ㄷ부사1)
- (자) 어미와 어간 등의 처리는 품사 분류 시에 관여하지 않으며, 종결어미를 보조사(예: 요)로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종결어미로 처리한다.
- (차) 한국어의 품사로 분류할 수 없는 외국어는 분석에서 제외한다.(예: 보테 니컬 ㄷ제외) 단, 표준국어대사전에 존재하는 외래어는 분석에 포함한다.
(예: 로맨틱하다 ㄷ형용사1)

4. 신뢰도 분석

전체 발화 샘플 중 10%에 해당하는 7명을 임의로 선택하여 품사별 산출 빈도의 비율에 대하여 검사자내, 검사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본 논문의 저자가 제 1검사자로서, 전체 자료의 분석이 끝난 후 약 2주일 후 임의로 선택한 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전 항목 결과의 일치율을 구한 결과, 검사자내 신뢰도는 99.2%로 나타났다. 제 1검사자는 전체 자료의 분석 결과 검토를 수차례 반복하였고, 1차 신뢰도 검사 후 1주일 지난 뒤, 2차 신뢰도 검사를 위해 임의로 추출한 7명을 다시 실시하였다. 전 항목 결과의 일치율을 구한 결과, 검사자내 신뢰도는 100%로 나타났다.

검사자간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제 2검사자로서 언어병리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대학원생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품사 분류 방법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제 1 검사자와의 일치율은 95.1%로 나타났다.

5. 통계 분석

PASW 18.0을 이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 노년층과 청년층 간에 형식·기능·의미적 분류에 따른 품사 사용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품사의 토큰과 타입의 ‘비율’과 ‘어휘다양도’를 통계 검정하였다. 집단 간에 교육년수를 공변량으로 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5로 하였다.

III. 결과

1. 분류 방법에 따른 품사 산출 빈도와 비율의 양상

가. 형식적 분류에 따른 품사

각 집단의 형식적 분류에 따른 품사 산출 ‘빈도’와 ‘비율’의 기술통계량을 표3에 제시하였다. 또한 집단 간 ‘비율’의 차이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를 표4에 나타내었다. 표3과 표4에서 보듯이, 가변어의 경우,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더 적은 토큰(노년층:26.9±3.3; 청년층:32.3±3.4, $p=.004$)을, 더 적은 타입(노년층:23.6±3.0; 청년층:31.7±3.2, $p<.001$)을 사용하였다. 이때 가변어의 어휘 다양도는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낮았다(노년층:0.49±0.08; 청년층:0.53±0.06, $p=.013$). 불변어의 경우,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토큰(노년층: 73.13±3.3; 청년층:67.7±3.4, $p=.004$)을, 더 많은 타입(노년층:76.4±3.0; 청년층: 68.3±3.2, $p<.001$)을 사용하였다.

표3. 집단별 형식적 분류에 따른 품사 빈도와 비율 및 TTR

품사	집단	노년층(n=35)			청년층(n=35)		
		토큰	타입	TTR ^c	토큰	타입	TTR
가변어	빈도 ^a	48.5±18.1 ^d	22.6±6.7 ^f	0.49±0.08	71.2±18.0	35.9±7.1	0.53±0.06
	(비율) ^b	(26.9±3.3)	(23.6±3.0)		(32.3±3.4)	(31.7±3.2)	
불변어	빈도	129.4±41.0	72.5±16.8	0.58±0.06	148.8±33.3	79.4±13.4	0.54±0.05
	(비율)	(73.1±3.3)	(76.4±3.0)		(67.7±3.4)	(68.3±3.2)	

^{a,b}:M±SD, ^a단위:개, ^b단위:%, ^c:Type-Token Ratio=f/d=타입빈도/토큰빈도

표4. 집단 간 형식적 분류에 따른 품사 비율과 TTR의 통계분석

품사	통계값			
	제공합	F	p-value	
가 변 어	토큰 비율	99.633	8.885	.004**
	타입 비율	331.033	35.262	<.001***
	TTR ^a	0.035	6.541	.013*
불 변 어	토큰 비율	99.633	8.885	.004**
	타입 비율	331.061	35.260	<.001***
	TTR	0.004	1.135	.290

*<.05, **<.01, ***<.001, ^a:Type-Token Ratio

나. 기능적 분류에 따른 품사

각 집단의 기능적 분류에 따른 품사 산출 ‘빈도’와 ‘비율’의 기술통계량을 표5에 제시하였고, 집단 간 ‘비율’의 차이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를 표6에 나타내었다. 표5과 표6에서 살펴보면, 첫째 체언의 경우,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토큰(노년층:35.1±4.6; 청년층:31.2±2.3, $p=.002$)을 사용하였다. 둘째 용언의 경우,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더 적은 토큰(노년층:26.9±3.3; 청년층:32.3±3.4, $p=.004$)을, 더 적은 타입(노년층:23.6±3.0; 청년층:31.7±3.2, $p<.001$)을 사용하였다. 이때 용언의 TTR은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노년층: 0.48±0.08; 청년층:0.53±0.06, $p=.013$). 셋째 수식언의 경우,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더 적은 토큰(노년층:14.6±3.6; 청년층:16.8±2.5, $p=.004$)을 사용하였다. 넷째 독립언의 경우,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타입(노년층: 5.0±2.7; 청년층:2.1±1.2, $p=.006$)을 사용하였다.

표5. 집단별 기능적 분류에 따른 품사 빈도와 비율 및 TTR

품사	집단	노년층(n=35)			청년층(n=35)		
		토큰	타입	TTR ^c	토큰	타입	TTR
체인	빈도 ^a	62.9±22.3 ^d	42.6±12.8 ^f	0.69±0.08	68.9±16.7	45.2±9.6	0.66±0.07
	(비율 ^b)	(35.1±4.6)	(44.1±5.2)		(31.2±2.3)	(38.6±3.5)	
용언	빈도	48.5±18.1	22.6±6.7	0.48±0.08	71.2±18.0	35.9±7.1	0.53±0.06
	(비율)	(26.9±3.3)	(23.6±3.0)		(32.3±3.4)	(31.7±3.2)	
수식언	빈도	25.6±9.9	14.7±4.6	0.60±0.13	35.7±9.0	20.1±4.7	0.55±0.09
	(비율)	(14.6±3.6)	(15.5±3.3)		(16.8±2.5)	(17.4±3.3)	
독립언	빈도	7.5±4.1	4.3±1.8	0.67±0.24	3.2±2.2	2.3±1.1	0.77±0.29
	(비율)	(5.1±4.3)	(5.0±2.7)		(1.6±1.3)	(2.1±1.2)	
관계언	빈도	33.4±14.3	10.9±2.0	0.37±0.11	40.0±11.5	11.8±2.4	0.31±0.07
	(비율)	(18.3±2.7)	(11.7±2.0)		(18.1±2.6)	(10.3±1.8)	

^{a,b}: M±SD, ^a단위: 개, ^b단위:%, ^c: Type-Token Ratio=f/d=타입빈도/토큰빈도

표6. 집단 간 기능적 분류에 따른 품사 비율 및 TTR의 통계분석

품사	통계값			
	제공합	F	p-value	
체언	토큰 비율	135.023	10.204	.002**
	타입 비율	225.028	11.260	.144
	TTR ^a	1.492E-5	.002	.960
용언	토큰 비율	99.633	8.885	.004**
	타입 비율	331.033	35.262	<.001***
	TTR	.035	6.541	.013*
수식언	토큰 비율	82.027	8.984	.004**
	타입 비율	18.181	1.658	.202
	TTR	.046	3.676	.059
독립언	토큰 비율	29.645	2.910	.093
	타입 비율	35.002	7.933	.006**
	TTR	.001	.012	.915
관계언	토큰 비율	4.267	.589	.445
	타입 비율	35.002	7.933	.352
	TTR	.004	.509	.478

*<.05, **<.01, ***<.001, ^a:Type-Token Ratio

다. 의미적 분류에 따른 품사

각 집단의 의미적 분류에 따른 품사 산출 ‘빈도’와 ‘비율’의 기술통계량을 표7에 제시하였고, 집단 간 ‘비율’의 차이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를 표8에 나타내었다. 표7과 표8에서 살펴보면, 첫째 대명사의 경우,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토큰(노년층:4.5±1.7; 청년층:2.6±1.2, $p=.002$)을, 더 많은 타입(노년층:5.3±2.3; 청년층:3.4±1.2, $p=.002$)을 사용하였다. 둘째 동사의 경우,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토큰(노년층:21.3±3.5; 청년층:19.3±3.2, $p=.037$)을 사용하였다. 이때 동사의 TTR은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낮았다(노년층: 0.46±0.09; 청년층:0.54±0.09, $p=.017$). 셋째 형용사의 경우,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더 적은 토큰(노년층:4.4±1.8; 청년층:10.8±1.8, $p<.001$)을, 더 적은 타입(노년층: 5.1±1.6; 청년층: 11.4±1.8, $p<.001$)을 사용하였다. 넷째 부사의 경우,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더 적은 토큰(노년층:12.6±3.3; 청년층: 14.7±2.6, $p=.002$)을, 더 적은 타입(노년층:12.9±2.7; 청년층:15.0±2.9, $p=.041$)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감탄사의 경우,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타입(노년층:5.0±2.7; 청년층:2.1±1.2, $p=.006$)을 사용하였다.

표7. 집단별 의미적 분류에 따른 품사 빈도와 비율 및 TTR

품사	집단	노년층(n=35)			청년층(n=35)		
		토큰	타입	TTR ^c	토큰	타입	TTR
명사	빈도 ^a	49.7±17.1 ^d	33.1±9.9 ^f	0.71±0.09	60.8±15.1	39.3±8.5	0.65±0.07
	(비율 ^b)	(27.8±3.6)	(35.4±3.7)		(27.5±2.2)	(33.6±3.4)	
대명사	빈도	8.1±4.4	5.1±2.6	0.68±0.18	5.7±2.5	3.9±1.5	0.73±0.20
	(비율)	(4.5±1.7)	(5.3±2.3)		(2.6±1.2)	(3.4±1.2)	

수사	빈도	5.1±4.1	3.4±2.5	0.65±0.31	2.4±2.4	2.0±1.6	0.75±0.38
	(비율)	(2.8±2.2)	(3.4±2.5)		(1.1±1.0)	(1.7±1.3)	
동사	빈도	38.8±15.3	17.0±5.7	0.46±0.09	42.7±11.8	22.4±5.7	0.54±0.09
	(비율)	(21.3±3.5)	(17.7±3.0)		(19.3±3.2)	(19.2±3.3)	
형용사	빈도	7.5±3.1	4.8±1.8	0.68±0.18	23.8±6.8	13.1±2.4	0.58±0.13
	(비율)	(4.4±1.8)	(5.1±1.6)		(10.8±1.8)	(11.4±1.8)	
지정사	빈도	2.2±2.0	0.8±0.4	0.40±0.37	4.8±2.9	1.3±0.6	0.38±0.29
	(비율)	(1.1±0.9)	(0.8±0.5)		(2.1±1.3)	(1.1±0.5)	
관형사	빈도	3.3±1.8	2.3±1.2	0.72±0.29	4.8±3.0	2.6±1.5	0.56±0.28
	(비율)	(2.0±1.2)	(2.6±1.3)		(2.1±1.3)	(2.3±1.4)	
부사	빈도	22.2±9.2	12.4±4.0	0.59±0.14	31.9±7.8	17.5±3.8	0.56±0.11
	(비율)	(12.6±3.3)	(12.9±2.7)		(14.7±2.6)	(15.0±2.9)	
감탄사	빈도	7.5±4.1	4.3±1.8	0.67±0.23	3.2±2.2	2.3±1.1	0.76±0.29
	(비율)	(5.2±4.3)	(5.0±2.7)		(1.6±1.3)	(2.1±1.2)	
조사	빈도	33.4±14.3	10.9±2.0	0.37±0.11	40.0±11.5	11.8±2.4	0.31±0.07
	(비율)	(18.3±2.7)	(11.7±2.0)		(18.1±2.6)	(10.3±1.8)	

^{a,b}:M±SD, ^a단위:개, ^b단위:%, ^c:Type-Token Ratio=f/d=타입빈도/토큰빈도

표8. 집단 간 의미적 분류에 따른 품사 비율 및 TTR 통계분석

품사	통계값			
	제공합	<i>F</i>	<i>p</i> -value	
명사	토큰 비율	14.595	1.695	.197
	타입 비율	31.118	2.403	.126
	TTR ^a	.000	.019	.891
대명사	토큰 비율	24.008	10.597	.002**
	타입 비율	33.907	10.728	.002**
	TTR	.012	.322	.572
수사	토큰 비율	8.581	2.896	.093
	타입 비율	12.516	3.097	.083
	TTR	.187	1.533	.220
동사	토큰 비율	51.628	4.541	.037*
	타입 비율	1.602	.159	.692
	TTR	.049	5.959	.017*
형용사	토큰 비율	254.847	81.410	<.001***
	타입 비율	288.664	104.452	<.001***
	TTR	.052	2.116	.150
지정사	토큰 비율	1.328	1.137	.290
	타입 비율	.028	.111	.740
	TTR	.006	.051	.821
관형사	토큰 비율	.014	.009	.924
	타입 비율	3.080	1.574	.214
	TTR	.149	1.815	.183

부 사	토큰 비율	85.635	10.072	.002**
	타입 비율	33.332	4.354	.041*
	TTR	.020	1.230	.271
감 탄 사	토큰 비율	29.645	2.910	.093
	타입 비율	35.002	7.933	.006**
	TTR	.001	.012	.915
조 사	토큰 비율	4.267	.589	.445
	타입 비율	3.105	.841	.352
	TTR	.004	.509	.478

* <.05, ** <.01, *** <.001, ^a:Type-Token Ratio

2. 용언(동사, 형용사, 지정사)의 관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가. 추가 실험의 필요성

두 집단 간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던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를 포함한 용언이었다.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용언의 사용이 유의하게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산출한 용언을 관형적 용법(attributive use)과 서술적 용법(predicative use)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관형적 용법은 한정적 용법(modifying use)이라고도 하며, 체언 앞에서 위치하여 해당 체언의 의미를 한정하는 쓰임을 말한다. 서술적 용법은 체언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내용을 서술하는 쓰임을 말한다. 즉 용언의 사용이 줄어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문장 내에서 어떤 용법으로 사용하였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고 두 집단 간에 차이를 통해 본 노년층의 발화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나. 실험 절차

기존의 자료에서 모든 대상자가 산출한 용언인 동사와 형용사, 지정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전체 용언을 관형적용법의 동사, 서술적용법의 동사, 관형적용법의 형용사, 서술적용법의 형용사, 관형적용법의 지정사, 서술적용법의 지정사, 총 6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때, 각각의 용법은 발화의 문장에서 내포문을 이룬 복문의 형태일 경우에 어떤 문장성분(예: 주어, 서술어, 관형어 등)으로 기능하는가와 상관없이, 형식상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에서 주어인 “그게”의 측면에서 “좋았던”은 서술어이지만, 뒤의 명사 “것”을 꾸미는 관형적 용법으로 쓰였으므로, “좋았던”은 형용사의 관형적 용법으로, “같아요”는 서술적 용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위 6가지 항목의 수치는 비율로 나타내기 위해 전체 동사, 형용사, 지정사의 수로 각각 나누어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그 다음, 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교육년수를 공변량으로 한 공분산분석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다. 분석 결과

각 집단별 용언의 관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사용 비율의 기술통계량을 표9에 제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를 표10에 나타내었다. 두 집단 모두 서술적 용법을 관형적 용법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용언이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9과 표10에서 살펴보면, 두 용법의 ‘비율’은 집단 간에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동사의 경우,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더 적은 관형적 용법(노년층:12.1±6.3; 청년층:21.3±8.5, $p=.006$)을, 더 많은 서술적 용법(노년층:87.9±6.3; 청년층:78.7±8.5, $p=.006$)을 사용하였다. 둘째 형용사의 경우,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더 적은 관형적 용법(노년층:19.9±16.8; 청년층:33.1±12.0, $p=.049$)을, 더 많은 서술적 용법(노년층:80.1±16.8; 청년층:67.0±12.0, $p=.049$)을 사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용언을 살펴보면,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더 적은 관형적 용법의 용언(노년층:13.2±5.6; 청년층:25.0±6.4, $p<.001$)을, 더 많은 서술적 용법의 용언(노년층:86.8±5.6; 청년층:75.0±6.4, $p<.001$)을 사용하였다.

표9. 집단별 용언의 관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의 사용 비율

집단 품사(용언)	노년층(n=35)		청년층(n=35)	
	관형적 용법	서술적 용법	관형적 용법	서술적 용법
동사	12.1±6.3 ^c	87.9±6.3	21.3±8.5	78.7±8.5
형용사	19.9±16.8	80.1±16.8	33.1±12.0	67.0±12.0
지정사	3.8±11.2	73.3±42.0	17.1±24.5	77.2±29.9
전체 용언	13.2±5.6	86.8±5.6	25.0±6.4	75.0±6.4

^{a,b}: 평균±표준편차, ^c단위: %

표10. 집단 간 용언의 관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사용의 통계분석

품사(용언)		통계값		
		제곱합	F	p-value
동사	관형적 용법	457.683	7.985	.006**
	서술적 용법	457.332	7.977	.006**
형용사	관형적 용법	866.823	4.020	.049*
	서술적 용법	866.823	4.020	.049*
지정사	관형적 용법	698.372	1.899	.173
	서술적 용법	763.331	.565	.455
전체 용언	관형적 용법	815.583	22.310	<.001***
	서술적 용법	815.583	22.310	<.001***

*<.05, **<.01, ***<.001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과 청년층이 자발화 과제에서 산출한 품사의 양상을 비교하여 노년층의 발화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 분류에 따른 품사를 살펴보면, 가변어에서는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더 적은 토큰과 타입을 사용하고, 불변어에서는 더 많은 토큰과 타입을 사용하였다. 또한 노년층이 가변어의 어휘다양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므로 적은 종류의 가변어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변어는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고 가변어는 그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¹⁰ 가변어는 기본형이 아닌 활용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변어의 사용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문장을 구성할 때 더 많은 문법형태소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⁸ 노년층은 가변어의 사용이 감소하였으므로 적은 문법형태소를 활용하여 문장을 산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능적 분류에 따른 품사를 살펴보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관계언을 제외한 모든 품사로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이었다. 먼저 체언에서는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토큰을 더 많이 산출하였다. 하지만 체언의 타입과 어휘다양도는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더 다양한 체언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높은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 용언을 살펴보면,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토큰과 타입 모두 더 적게 산출하였다. 또한 노년층이 용언의 어휘다양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므로, 용언의 사용의 비율이 낮았을 뿐 아니라 빈약한 어휘력을 보였다. 노년층은 어휘력이나 이름대기, 다양한 어휘의 사용 등 의미적 측면에서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²⁶ 또한 용언의 추가 실험에서,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관형적 용법을 더 적게 사용하였고, 서술적용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양상에 대한 원인으로 관형적 용법의 사용이 통사적으로 훨씬 복잡한 구조라는 것들을 들 수 있다. 특히 실시간 대화의 현장에서는 통사적으로 복잡한 내포문의 구조를 만드는 관형적 용법의 사용이 비교적 힘들 수 있다.³⁸ 정상 노년층의 구

문적 복잡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문적 복잡성이 감소하였고, 특히 70대 중반에 가장 빠른 속도로 구문 능력이 저하되었다.³⁴ 본 연구에서 노년층의 관형적 용법의 저하도 위 선행연구³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 번째, 의미적 분류에 따른 품사를 살펴보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것은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였다. 먼저 대명사에서서는 토큰과 타입 모두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많이 산출하였다. 대명사는 앞선 대화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을 지적할 때 명사 대신 사용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가리키기만 하는 품사로 정의된다.¹⁰ 노년층에서 대명사의 사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말할 때 대응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어휘를 사용할 부분에 상황적 지시어로 대신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그 다음, 동사를 살펴보면,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더 많은 토큰을 사용하였다. 노년층의 동사산출 비율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³⁶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동사의 어휘다양도는 노년층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즉 노년층이 높은 비율로 동사를 사용하였지만 적은 종류의 어휘를 사용하여 같은 단어를 반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형용사에서서는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토큰과 타입 모두 더 적게 산출하였다. 형용사는 본 연구에서 집단 간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난 품사였다. 우리말의 형용사는 인구어 계통과 달리²², 동사와 매우 흡사한 성격을 지니며 동사와 함께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기본 품사이다.²⁴ 형용사는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연을 확정하기가 어려우며 유의어와 다의어가 많다.²⁹ 특히 동사와 구별되는 형용사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상태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의 서술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상태, 가치, 성질에 대한 서술을 하는 것이다.²⁵ 품사 발달 연구에 의하면, 최초에 명사와 감탄사가 나타나고 그 뒤에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 대명사가 나타난다.³⁰ 즉 명사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후에 형용사와 동사가 나타나되, 형용사의 습득이 더 늦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³⁰ 즉 추상적인 형용사의 습득이 구체적인 동사의 습득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³⁰ 노년층의 언어기능에 대한 연

구³⁶에서는 노년층의 형용사와 동사의 비율(adjective/verb: AVR)을 살펴보았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형용사에 비하여 동사의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AVR은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 노년층의 형용사 산출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위 연구³⁶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형용사는 노년기에 산출 비율의 감소가 다른 품사에 비해 두드러질 수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의사 표현 시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고 주관적인 묘사, 상태를 서술하는 것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사를 살펴보면,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토큰과 타입 모두 적게 산출하였다. 부사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말의 뜻을 분명히 제한해주는 기능을 한다.¹⁰ 이러한 부사를 사용하면 문장 성분들의 의미를 긴밀하게 하고, 의미를 강조하거나 한정하게 된다. 노년층은 청년층과 비교하여 이러한 표현을 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감탄사는 타입을 노년층이 더 많이 산출하였다. 감탄사의 어휘다양도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는데, 노년층이 많은 타입을 산출했지만 토큰도 많이 산출한 경향성 ($p=.093$)을 보였다. 이때 감탄사 중의 대부분은 발화 중 불필요하게 반복되거나 뜻을 담고 있지 않는 입버릇 등의 단어가 많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품사의 세 가지 분류방법을 통해 여러 측면에서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노년층의 발화 특성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노년층의 용언 사용이 감소하고, 동사 사용은 증가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내용으로 여겨졌는데, 이는 노년층에서 용언 내 형용사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감소했기 때문이었음을 밝혀, 상반되는 사용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었다. 둘째, 품사의 토큰과 타입, 어휘다양도를 살펴봄으로써 발화의 빈도인 양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발화의 다양성인 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발화수가 증가할수록 어휘다양도의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어휘다양도보다 토큰과 타입을 어휘능력의 척도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⁴⁰ 본 연구에서도 집단 간 토큰과 타입의 수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비교적 많았으나, 어휘다양도에서는 차

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선행연구⁴⁰의 지적과 동일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발화에서 어휘의 사용특성을 분석할 때 어휘다양도보다 토큰과 타입의 수치가 더 민감한 척도라는 의견을 지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을 대조군으로 하여 노년층의 비교를 하였지만 단순히 청년층을 대조군으로 설정한다면, 노년층의 발화특성이 매우 저조하게 나오게 된다. 연세 구어·문어 한국어 말뭉치의 자료에서 대화에 대한 품사별 사용 빈도 분석 결과, 동사는 166,238회, 형용사는 60,031회로 동사 대 형용사의 배수는 2.7:1이었다.³⁸ 또한 21세기 세종계획 국어기초자료에서 문어 말뭉치에 대한 품사별 사용 빈도 분석 결과, 동사 933,656회, 형용사 207,620회로 나타났고, 동사 대 형용사의 배수는 4.4:1이었다.³⁹ 본 연구 결과에서 노년층의 동사, 형용사의 배수는 4.8:1, 청년층은 1.8:1이었다. 위의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할 때, 대화 자료³⁸에서의 수치는 본 연구의 청년층 수치와 더욱 가까우나, 문어 말뭉치³⁹에서의 수치는 노년층의 비율이 기본 수치와 더욱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년층과 노년층의 비교를 하기보다 30대, 50대, 70대 등으로 연령이 고르게 분포된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한다면 연령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더욱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였던 노년층은 서울지역 복지관의 실버문화대학, 교회의 경로대학의 수강생들로 비교적 높은 학력과 교육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일반 노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샘플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셋째, 본 연구는 교육년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오직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았는데, 노년층의 언어표현 능력은 성별과 교육정도에 의해 차이가 나타난다.²⁶ 따라서 품사 산출에 연령 뿐 아니라 교육년수, 성별의 영향을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노년층의 용언 사용에서 문장의 복잡성을 논하기 위해, 문장 발화 단위별 용언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 발화 단위로 나누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용언의 사용 특성과 문장 구성의 복잡성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일반 노년층과 청년층의 자발화 과제에서 형식, 기능, 의미에 따른 품사 산출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노년층의 발화 특성을 알아보았다.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활용하는 가변어인 용언의 사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노년층이 산출한 용언 중 동사의 사용은 더 늘어났음에도 형용사 사용의 줄어든 폭이 훨씬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용언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형용사의 사용 비율이 전체 용언의 비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형용사의 특징이 주로 상태를 서술하고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내포하며 표현을 풍부하고 세밀하게 해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노년층의 발화에서 위와 같은 점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노년층은 용언의 사용에서 관형적용법이 적고 서술적용법이 많은 점을 보아, 용언을 사용할 때 체언을 수식하고 한정하는 용법의 사용이 힘들고, 서술하는 용법의 사용을 더 수월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품사 산출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토론편과 타입, 어휘다양도 분석을 통해 밝혔고, 품사의 세 가지 분류방법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그 사용 양상을 분석한 데에 의의가 있다. 노년기 담화기능의 향상을 위한 언어중재에서 위와 같은 결과를 참고한다면, 일상 대화나 병원에서의 진료 상황 등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견, 상태를 설명해야 할 때, 세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품사 산출 양상을 연령뿐 아니라 교육년수, 성별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분석하고, 더 나아가 발화 단위에 따른 용언의 사용 분석을 통해 노년층의 문장의 구성 능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김정완, 김향희. 노년층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문헌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9;14:495-513.
2. 김수정, 최현주. 노년층의 명사 정의하기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107-117.
3. 손은남, 강수균. 청년기와 노년기의 이야기 담화 능력 특성 연구. 언어치료연구 2006;15(1):71-85.
4. 박보란. 노인의 담화에 나타난 주제진술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5. 박정호, 김화수. 정상 노화와 병리적 노화에 따른 발화 특성. 재활복지 2013;17(2):299-317.
6. 이영미, 김향희. 대화와 그림설명과제를 통한 한국성인 발화의 비교 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2001;6(1):40-52.
7. 강안영. 성인 초기, 중기 및 노년기의 복문 사용 평가.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8. 천옥현. 노년층의 담화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9. 김향희, 권미선, 나덕렬, 최상숙, 이광호, 정진상. 실어증환자 자발화의 유창성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998;3:5-19.
10.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탐출판사; 2011.
11. 이익섭. 국어문법론 강의. 서울: 학연사; 1999.
12. 이승진. 유창성 및 과제에 따른 실어증 환자의 품사 산출의 양상 비교. 언어청각장애연구 2009;14:470-483.
13. 신철범. 국어 감탄사의 담화표지 기능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4. 서상규, 구현정. 한국어 구어 연구(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서울: 한국문화사; 2002.

15. 장영희. 국어 관형사의 범주와 기능. *한국어 의미학* 2001;8:201-220.
16. 이정택. 관형사의 품사 설정 문제. *한말연구* 2003;13:167-187.
17. 구분관. 국어 품사 분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형태론* 2010;12(2):179-199.
18. 강연욱. K-MMSE의 노인 기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06;25(2):1-12.
19. 이봉원. 언어치료사를 위한 한국어문법. 충남: 나사렛언어청각센터; 2010.
20. 허 응. 국어학. 서울: 샘문화사; 1997.
21.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1991.
22. 최응환. 품사 분류에 대한 검토. *문학과 언어* 2009;31:55-78.
23. 서상규. 말뭉치 분석에 기반을 둔 낱말 빈도의 조사와 그 응용. *한글학회* 1998;242:225-270.
24. 김정남. 국어 형용사의 연구. 서울: 역락; 2005.
25. 유현경. 국어 형용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1998.
26. 최현주. 노년층의 담화 산출 특성: 노화, 성별,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 *말소리와 음성과학* 2012;4(2):135-143.
27. 이상태. 형용사 지도하기. *언어과학연구* 2009;48:85-100.
28. 김선정, 김목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 *비교문화연구* 2011;22:303-327.
29. 왕 단. 한국어 형용사 교육 연구. 경기도: 태학사; 2007.
30. 이정화. 조부월. 유아의 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 품사별 어휘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99;6(2):209-237.
31. Shewan CM, Henderson VL. Analysis of spontaneous language in the older normal population. *J Commun Disord* 1988;21:139-154.
32. Le Dorze G, Bedard C. Effects of age and education on the lexico-semantic content of connected speech in adults. *J Commun Disord* 1998;31:53-71.
33. Burke DM, Shafto MA. Aging and language production. *Curr Dir Psychol Sci* 2004;13(1):21-24.

34. Kemper S, Marquis J, Thompson M. Longitudinal change in language production: effects of aging and dementia on grammatical complexity and propositional content. *Psychol Aging* 2001;16:600-614.
35. Kemper S, Herman R, Lian C. Age differences in sentence production. *J Gerontol* 2003;58B(5):260-268.
36. Critchley M. Language functioning in the elderly. *Arch Neurol* 1984;41:1135-1139.
37. 이현정, 박창일, 박은숙, 김향희. 아동의 구문발달에 따른 용언의 발달. *언어척각장애연구* 2003;8(1):20-40.
38. 배진영, 최정도, 김민국. 구어 문어 통합 문법 기술 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박이정; 2013.
39. 강범모, 김홍규.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2. 서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4.
40. Watkins RV, Kelly DJ, Harbors HM, Hollis W. Measuring children's lexical diversity: differentiating typical and impaired language learners. *J Speech Hear Res* 1995;38(6):1339-1355.

Abstract

Utterance characteristics in normal elderly via analysis of patterns of word class production

Ji Young Kim

*The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angHee Kim)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s utterances by comparing certain aspects of the production of word classes in spontaneous speech among elderly and young people. To do so, spontaneous speech samples of 35 young people and 35 elderly people were collected. Word classes were then divided according to three criteria (form, function and meaning) and each aspect was analyzed separately. The values of the real usage frequency of each instance of a word class (token) and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each word class(type), type-token ratio(TTR) were then calculated.

First, for the formal category of word classes, in terms of both type and token count, the use of inflected words was lower among elderly people than among young people, while that of uninflected words was higher. Also TTR of inflected words was lower in elderly people. Second, for the functional category of word classes, the token count for substantives was higher among elderly people than young people, while both the type and token count of inflectional words were lower. Furthermore, among elderly

people the token count for modifiers was found to be higher and the token count for independent words lower than among young people. Third, for the semantic category, the token and type count for pronouns were higher among elderly people compared to young people and the token count for verbs was also higher. Also, TTR of verbs was lower in elderly people. Furthermore, the token and type counts for adjectives and for adverbs were both found to be lower among elderly people than young people. Finally, elderly people exhibited a larger type count for exclamations.

Addition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more concretely the reduced use of inflected words among elderly people. Thus, inflectional words were divided according to whether they were used attributively or predicatively and each section was analyzed to check for differences in usage rate between the young and elderly group. Attributive use was found to be more prevalent than predicative use among both the young and the elderly. Furthermore, attributive use was lower and predicative use higher among elderly people than among young people.

The use of inflectional words among the elderly also clearly differed from that of young people which shows that the use of inflectional words is harder for this group. Besides, the token count for verb use among the elderly was higher and TTR of verbs was lower in elderly, it appears that it was not various types of verbs that were used but rather the same words that were repeated. Also, despite an increased use of verbs, the large extent of reduction of the use of adjectives caused the overall number of inflectional words to decrease.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usage rate of adjectives strongly influences the usage rate of inflectional words and that adjectives are characterized by their ability to describe a situation or connote a subjective value judgment thus making a sentence richer and more detailed, it appears that these aspects are lacking in the speech of elderly people. Furthermore, given that the predicative use of inflectional words is more frequent than the attributive use among the elderly, it can be concluded that qualifying or modifying substantives when

using inflectional words is harder for them while a predicative use feels easier.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language of the elderly via word class analysis. This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ree criteria of word class to find out those characteristics in various aspects. But further research still needs to be carried out with considering the effect of education level or gender as well as aging on the production of word classes. Moreover, the research for the use of inflectional words in utterance level needs to be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the ability in construction of a sentence among elderly people.

Key words : elderly, spontaneous speech, word class, inflectional word, adjective, token, type, type-token ratio(TTR), attributive use, predicative use